모빌리티

기아 Investor Day 초대장 발부

자동차/모빌리티
Analyst 김준성
joonsung.kim@meritz.co.kr
RA 배현서
hyeonseo.bae@meritz.co.kr

Meritz Research 2026. 3. 12

안녕하세요 메리츠증권 김준성입니다.

4월 9일 진행될 기아 인베스터 데이 초대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엔비디아 출신 현대차그룹 자율이동 개발 총괄 박민우 사장과 Boston Dynamics 정밀제어 개발 총괄 Jack Jackowski이 참여해, 현대차그룹의 미래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현대차와 기아의 2026년 실적 기준 PER은 각각 11.6배, 7.5배입니다. 이 같은 격차는 그룹의 휴머노이드 개발 전략이 공유된 CES를 현대차가 주관한 뒤부터 발생했습니다.

모든 개발 진행과 성과 공유가 동행하는 현대차/기아 간의 일시적 밸류에이션 격차 발생은 투자의 기회라고 판단합니다.

새로운 물리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공개될 4/9까지 양 사의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상승과 기아의 밸류에이션 갭 축소를 전망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서 해당 추천 종목을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